

## 이안눌의 관북 종군기 〈북새록〉연구

배주연\*

〈차례〉

1. 서론
2. 이안눌의 『北塞錄』과 변새시
3. 邊塞 風情의 시적 형상화 양상
  - 1) 지향하는 의지적 자아의 형상화: ‘豪壯’
  - 2) 실의한 현실적 자아의 형상화: ‘悲慨’
4. 이안눌 변새시의 특징 및 의의
5. 결론

### 〈국문초록〉

‘穆陵盛世’로 불리는 조선 중기 한시사에서 이안눌(1571~1637)은 권필(1569~1612)과 함께 거론되며 盛唐風의 기초를 띠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본고는 이안눌의 문집 『東岳集』중에서 관북 종군 체험의 기록인 제1권 『北塞錄』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변새시 양상을 살피고 그 특징 및 의의를 고찰한 것이다.

도입부에서는 작품 분석에 앞서 그의 관북·관서 지역에서의 특수한 관력과 『北塞錄』의 대략적 작품 개관을 살피고 변새시의 개념 및 범주를 정리하였다.

‘邊塞 風情의 시적 형상화 양상’에서는 ‘豪壯’을 미감으로 하는 ‘지향하는 의지적 자아의 형상화’와 ‘悲慨’를 미감으로 하는 ‘실의한 현실적 자아의 형상화’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두 가지 양상을 다시 전자는 제목 형태에 따라 ‘題古樂府詩’와 ‘題朝鮮地名’으로 나누고 후자를 정서의 표출 양상에 따라 ‘내적 갈등의 직접적 토로’와 ‘절제된 슬픔의 담담한 술회’로 나누어 개별 작품의 분석을 통해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豪壯’의 미감을 주로 하고 ‘지향하는 의지적 자아를 형상화’ 하는 작품 경향은 의고의 성격을 띤 관습적 표현을 많이 써서 실제 체험과는 다른 윤색된 공간

\* 이화여대

으로서의 변세 장면이 제시된다.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감각적 시상을 통한 색채의 강렬한 대조, 지나친 과장의 방식을 자주 사용하며 시점도 ‘丈夫’·‘男兒’ 등의 범칭의 인물 형상의 형태로 자주 표현되는 특징을 가진다.

다음으로 ‘悲慨’의 미감을 주로 하는 ‘실의한 현실적 자아를 형상화’하는 작품 경향은 자신의 경험을 직접적 언술 방식으로 드러냄으로써 변세 현실의 실제 생활을 구현해내는 특징이 있다. 좌절과 슬픔의 표출 방식은 때로는 직설적 언술로 다소 격하게 토로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을 절제하여 내면에 가라앉힘으로써 담담한 어조로 자연스럽게 드러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작품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이안눌 변세시의 특징 및 의의를 전통의 수용과 변용의 측면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조선 중기 학당풍의 분위기 속에서 변세시는 중국 성당풍 변세시파의 전통을 조선 문풍에 맞게 수용하여 발전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이안눌의 『北塞錄』소재 변세시는 邊塞 風情에 대한 다양한 정서 표현이 드러나며, 여기에서 느끼는 정서적 갈등은 대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反戰사상이라기보다 개인적 차원의 관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시점, 의경, 시상 전개에 있어서 중군하는 주체로서의 실제 경험을 시적 화자와 일치시켜 표현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주제어 東岳 李安訥, 北塞錄, 邊塞 風情, 豪壯, 悲慨, 盛唐風,

## 1. 서론

‘穆陵盛世’로 불리는 조선 중기 한시사에서 이안눌(1571~1637)<sup>1)</sup>은 권필(1569~1612)과 함께 대표적으로 거명되는 인물이다. 시화집 속에 나타난 當代 시인에 대한 평을 살펴보면, 그는 시에 있어서 권필과 나란히 비교되면서<sup>2)</sup> 盛唐風의 기조를 띠었다는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 자는 子敏, 호는 東岳, 본관은 德水, 시호는 文惠이다.

2) 남용익은 『壺谷漫筆』에서 “우리나라에 권필과 이안눌이 있는 것은 唐의 이백이나

그러나 현재의 연구 성과를 보면 미학적 접근을 비롯한 종합적 논의가 다수 이루어진 권필의 경우와 달리 이안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소략한 상태이다.

단일 논문으로 이병주의 「東岳 李安訥의 詩文學」<sup>3)</sup>과 이종묵의 「李安訥 漢詩研究」<sup>4)</sup>가 대표적 논의이다. 이병주는 『東岳集』을 영인하는 과정에서 해제를 붙여 이안눌 시문학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四月十五日>이 ‘三吏·三別’의 울력이라고 하면서 學詩 연원이 두보에 있음을 최초로 밝혔다. 이종묵은 그의 현실적인 작품 경향을 특징으로 지적하고 學詩 연원이 杜甫詩와 韓愈詩에 있음을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석주 권필과 동악 이안눌의 시세계를 비교 고찰한 논의<sup>5)</sup>, 東岳 詩壇의 연원과 성격을 살핀 논의<sup>6)</sup>, 변새시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안눌 변새시의 특징을 살핀 논의<sup>7)</sup>, 이안눌을 포함한 조선 중기 서인계 인물의 시세계를 주목한 논의<sup>8)</sup>, 공자 후손과 동악의 교유 양상을 살핀 논의<sup>9)</sup> 등이 있다.

---

두보 같고 明의 이반룡이나 왕세정과도 같다(我朝之有權李 如唐之李杜明之滄奔而李之慕權又如子美之於太白)”라고 하면서 둘을 대등한 위치로 보고 서로 다른 시풍의 특징을 비교하여 평하였다.

- 3) 李丙疇, 「李安訥의 詩文學」, 『한국의 한문학』 제4권, 이병주 편, 민음사, 1991.(「東岳 李安訥의 詩文學」(『東慶語文論集』 1, 동국대 경주, 1984)을 재수록)
- 4) 李鍾默, 「李安訥 漢詩研究」, 『韓國文化』, 한국문화연구소, 서울대, 1994.
- 5) 鄭珉, 「石洲 權輿과 東岳 李安訥의 대비적 고찰」, 『韓國學論集』 10,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6.
- 6) 東岳 詩壇의 조성 경위와 성격 등을 연구한 논의(具本術, 「李安訥의 東園과 詩壇에 대하여」, 『韓國漢詩作家研究』 9, 2004.
- 7) 具本術, 「李安訥 邊塞詩의 研究」, 『韓國漢詩研究』 5, 2004.
- 8) 김창호는 조선 중기 서인계 시인의 시세계를 연구하면서(『조선 중기 서인계 시인의 시세계 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 논문, 2005) 임전, 권필, 이안눌 세 인물을 주목하여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 9) 김상일, 「朝鮮 士大夫의 孔子 後裔와 交遊」-東岳 李安訥의 『孔提督酬唱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삼국의 상호 교류와 소통의 양면성> 한국한문학회 학술대회 발

학위 논문으로 김상일의 『東岳 李安訥 詩研究』<sup>10)</sup> 이안눌 시의 연원과 배경 등을 고구하고 작품 세계의 제재적 자질과 문예적 특징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의의를 가진다.<sup>11)</sup> 줄고, 『東岳 李安訥 詩文學 研究』<sup>12)</sup>는 紀實문학으로서의 특성에 주목하여 임·병 양란의 전란 체험, 여러 지방에서의 任地 체험, 육로와 해로의 사행 체험으로 나누어 투영된 의식 세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본현의 『東岳 李安訥 漢詩 研究』<sup>13)</sup>는 學詩 방법과 태도를 고찰하고 作詩 목적과 작법, 풍격과 작법의 관련 양상을 나누어 살핀 후 목릉시단에서의 위상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이안눌 시세계의 대략적 윤곽이 드러나면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해지긴 했지만 4천여 수의 그의 방대한 작품 수를 고려한다면 심미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 작품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아직 미흡하다 하겠다.

이에 본고는 이안눌의 문집 『東岳集』<sup>14)</sup> 제1권 「北塞錄」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변세시에 나타나는 특징적 측면을 밝히고자 한다. 이안눌이 29세의 나이로 함경북도 병마평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남긴 기록인 「北塞錄」은 작가의 특수한 작시 상황으로 인하여 다른 편록과는 차별화된 특

표문, 2010.

10) 김상일, 『東岳 李安訥 詩研究』(보고사, 2000). 후속 논의로 金相日, 「조선조 邊塞 문학의 한 국면」(『동국어문학』 13집)과 「李安訥의 佛敎詩에 대하여」, (『불교어문논집』, 한국불교어문학회, 2000)가 있다.

11) 이외에 「萊山錄」所載의 작품을 대상으로 비록 일부분이지만 주제별로 분석하고 그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고 있는 논문으로 권현주의 『東岳 李安訥의 詩 研究』(부산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2)와 김진아의 『李安訥의 「萊山錄」研究』(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1998)가 있다.

12) 줄고, 『東岳 李安訥 詩文學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13) 具本衡, 『東岳 李安訥 漢詩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14) 본고는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영인한 『東岳集』(『韓國文集叢刊 78』), 1권 「北塞錄」을 논의 대상으로 한다.

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연구 의의가 있을 것이다.

첫째, 변새라는 특수 공간에 대한 그의 의식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공간의 특수성과 관련된 이 시기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안눌이 체험한 현실 인식의 일단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변새에서의 鄉愁, 客苦 등의 표현 방식이 당시의 일반적 경향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방대한 작품 가운데 권1인 「北塞錄」에 대한 본 연구를 통하여 청년기 이안눌 한시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599년 등제 이후, 같은 해 경성에 부임하여 남긴 작품을 통하여 젊은 시기 시풍의 면모를 고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후 1624년 경성으로 유배되어 남긴 권15 「北竄錄」소재 작품이나 1631년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남긴 권 19 「咸營錄」에 나타난 노년기 작품과의 비교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조선 중기 당시풍과 관련하여 盛唐 시기 변새시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안눌 변새시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전후 문풍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민감한 문제로 대두된 16세기 조선 한시의 특성인 擬古의 양상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이다.

## 2. 이안눌의 「北塞錄」과 변새시

이안눌의 『東岳集』은 ‘一官一錄’을 원칙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엮는 편년식의 편차방식을 취하였는데<sup>15)</sup> 이러한 문집 체제로 인해 문체별로 엮

15) 이안눌은 전라도의 錦山郡守로 있을 때(1611-1613) 증조인 용재 이행의 문집인 『容

였던 동시대 다른 문인들에 비하여 작가의 행적을 쉽게 알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평생을 지방관이나 원접사, 조천사신으로 수행하였던 그였으므로 관서·관북지역에서의 관력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題豐沛館壁上><sup>16)</sup>에서는 자신의 일생을 숫자와 지명을 넣어 회고하는 형식으로 관북에서의 관력을 시화하며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序에서 설명을 덧붙여 이력을 자세히 쓰고 있다.<sup>17)</sup> 二十二, 二十九兵, 三十三難, 五十四, 六十一, 磨雲嶺, 豆滿江, 從軍, 守端郡 등 숫자와 지명, 직명 등의 나열로 시 전체를 구성하고, 마지막 구에 심정을 밝힌다. 피난, 종군, 군수, 유배, 관찰사

齋集』을 중간하였는데, 이러한 구성은 이 때 익혔던 방식인 듯하다. 이행의 『容齋集』은 원집 10권과 外集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권3까지는 시작품을 시체별로, 권4에서 권8까지는 仕宦時와 謫居時에 지은 시작을 시대순으로 권10까지는 散文碑誌類를 모아 편찬하였다.(『韓國文集叢刊 20』의 『容齋集』해제 참고)

|             |                      |
|-------------|----------------------|
| 16) 二十二歲老書生 | 22세엔 나이든 서생이었는데      |
| 磨雲嶺下來避兵     | 마운령 아래로 병난을 피했었네     |
| 二十九歲新釋褐     | 29세에 겨우 갈옷을 벗고       |
| 豆滿江上從軍行     | 두만강 가에서 군무에 종사했었지    |
| 三十三歲守端郡     | 33세에 단천 군수 되었다가      |
| 五十四歲流鏡城     | 54세에 경성으로 유배 왔었지     |
| 擁節如今六十一     | 부절을 가지고 온 지금은 61세    |
| 仰天大笑天日明     | 우러러 하늘의 해가 밝다고 크게 웃네 |

<題豐沛館壁上>, 권19 「咸營錄」, 5면.

17) “만력 임진년 여름 바다의 도적이 난리를 치니 우리 집안은 달아나 利城에 깃들여 살았다. 당시 내 나이 22세였다. 기해년(1599) 여름에 과거에 급제하고 가을에 北道評事に 임명되었는데 당시 내 나이 29세였다. 임인년 겨울에 단천 군수에 임명되었고 계묘년 봄에 부임하니 당시 내 나이 33세였다. 천계 갑자년 봄에 경성으로 귀양 오니 당시 내 나이 54세였다. 지금은 내 나이 61세이다. 그러므로 장난삼아 56자를 엮어 이를 기록한다.(萬曆壬辰夏 海賊之亂 余家奔竄 來寓利城 時余年二十二歲 己亥夏擢第 秋拜北道評事 時余年二十九歲 壬寅冬 除端川郡守 癸卯春 上任 時余年三十三歲 天啓甲子春 竄鏡城 時余年五十四歲 今則余年六十一歲 故戲綴五十六字而志之)”

등으로 함경도를 찾은 지난날의 내력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관북에서의 자취를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단천군수 재임시 남긴 권6 「端州錄」에 91제, 경성 유배시 남긴 권15 「北竄錄」에 145제, 함경도 관찰사 재임시 남긴 권19 「咸營錄」에 116제의 작품이 실려 있어 「北塞錄」所載 79제를 합하면 관북 지역에서 남긴 이안눌의 작품은 총 431제이다.

또 관서에서의 경험을 기록한 작품은 원접사종사관으로 수행시 지은 東槎錄」에 89제, 재상안핵어사로 평안도를 순력하면서 지은 「關西錄」에 27제, 명사신 접반사 수행시 지은 「關西後錄」에 36제가 실려 있으며, 조천 사행시 지은 「朝天錄」, 「朝天後錄」에도 사행의 노정 중에 관서를 지나며 남긴 작품들이 상당수 있다.

이 중 「北塞錄」은 『東岳集』제1권으로 그가 1599년부터 1600년까지 함경북도 병마평사<sup>18)</sup>로 있을 때의 작품으로 79제가 실려 있는데, 전체 작품은 순차적 시간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은 1599년 8월 21일 병마평사에 임명되어 9월 4일 서울을 떠나 경성으로 부임해 가는 주변에서 임진왜란 시 가족들과 피난했던 금화, 철원, 홍원, 단천, 북청 등의 고을에서 당시를 회억하는 작품이고, 다음 부분은 10월 4일 경성에 부임하여 관북 지역 변경의 고을과 鎭堡를 순행하거나 그 곳의 막부생활을 하면서 느낀 감회를 적은 작품이고, 마지막으로 퇴임하여 3월 21일 경성을 출발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금강산을 유람하며 지은 登覽詩<sup>19)</sup>이다. 이와 같은 내용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北塞錄」은 이안눌이 관북 지역에서의 종군 체험을 담은 기록으로 조선의 변새시집이라 할 수 있다.

18) 이안눌 외에도 비슷한 시기 崔慶昌, 宋象賢, 鄭斗卿 등이 재직하였다.

19) 금강산 登覽詩는 본고에서 다루는 주제와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변새시라는 용어는 중국의 盛唐 시기의 작가 중 일군을 ‘邊塞詩派’로 분류하여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발생을『詩經』에서 연원을 찾기도 하고, 秦漢 때 변새시의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民歌의 형태로 제작되던 것이 魏晉 南北朝 시기 문인들에 의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唐의 변새시파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다고 본다. 즉, 漢魏의 民歌를 재창작한 위진 문인들에게서 사조의 경향이 나타났으며, 唐에 이르러 다수의 수준 높은 변새시가 창작되면서 후대까지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변새시의 범주, 즉 정확히 어떤 시를 변새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발원지인 중국 학계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며 논란의 쟁점이 되어 왔다.<sup>20)</sup> 이에 대하여 鄭家治는 두보의 전란시와 변새시에 대한 논문에서 변새시의 범주에 대한 중국에서의 기존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고금(古今) 학자의 논술의 의거하여 군대 전란시와 변새시는 두 개 다른 개념이다. 변새시도 협의와 광의의 차이가 있다. 협의 변새시는 제재, 시간, 지역과 생활의 제한이 있다. 즉 당나라 시인이 작성한 몸소 겪은 일과 만리장성 및 河西隴右 등 지역의 변새 전쟁 생활에 관한 시가이다. 즉 문학역사상의 당나라 변새시이다. 당나라 변새시파가 작성한 변새시를 주로 가리킨다.

광의 변새시는 위의 4가지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sup>21)</sup> 중국고대와 변새생

20) 1984년 蘭州에서 열린 중국당대문학학회 2차 학술토론회에서 ‘변새시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치열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21) 崔庚鎮은 논문에서(「邊塞詩의 淵源과 發展」, 『中國語文論集』 9, 대한중국학회, 1994 2면.) 변새시의 범위에 대하여 첫째, 변새시는 당대 특히 성당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譚優學, <邊塞詩泛論, 『唐代邊塞詩研究論文選粹』 甘肅教育出版社, 1988)과 둘째, 漢代 樂府 심지어는 先秦의 詩經時代까지 소급할 수 있다는 주장(葛培嶺, <論初唐邊塞詩中的鬱憤特色>, 『中州學刊』 1984)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활에 관한 것은 반드시 시인의 몸소 겪은 일이라는 제한이 필요 없다. “그 중에는 전쟁에 관한 ‘군가’도 있고, 또 다량의 간접적으로 전쟁을 묘사하는 서정시, 영물시(咏物詩), 산수시(山水詩), 친구 주고받는 작품, 부부 애정 등 작품이다.” 군대 전쟁시란 지역(邊塞內地를 포함)에서 군대 전란생활을 제재로 작성한 시가이어서 시간과 생활의 제한이 광의 변새시와 비슷하다.<sup>22)</sup>

이 논의에서 변새시는 제재, 시간, 지역, 생활에 따라 협의의 변새시와 광의의 변새시로 나뉘며, 또 邊塞內地를 포함한 전란시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논의에 따르면 중국 당나라 시기 종군을 체험한 ‘邊塞詩派’의 시를 ‘협의의 변새시’로 볼 수 있으며, ‘광의의 변새시’는 네 가지 제한을 넘어서 범주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광의의 변새시’ 범주에서 보면, 唐代를 제외한 시기 중국에서 지어진 변새시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에 지어진 변새시풍의 작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안눌의 변새시는 당나라 시기의 변새 전란은 아니지만 조선 關北 지역에서의 실제 종군 체험을 시화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네 가지 요소 가운데 ‘생활 체험성’을 띠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조선 ‘변새시’에 있어서 변새라는 지역적 대상은 중국과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며, 그 곳은 지금의 함경도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함경도나 이곳의 사람들을 가

22) “根据古今學者的論述, 軍旅征戰詩与邊塞詩是兩個不同的概念, 邊塞詩亦有狹義与廣義之分。狹義的邊塞詩有題材, 時間, 地域与生活限制, 指的是唐代詩人所有親身見聞的与長城沿線及河西隴右等地的邊塞征戰生活有關的是个, 即通行文學史所說的唐代邊塞詩, 主要指唐代邊塞詩派所寫的邊塞詩。廣義的邊塞詩則适当放寬了上述四个限制, 指中國古代与邊塞生活相關的不一定是詩人親身見聞的詩歌, “其中既有描寫戰爭的‘軍歌’, 又有大量不直接寫戰爭的抒情詩, 咏物詩, 山水詩, 朋友贈答, 夫婦情愛之類的作品”。軍旅征戰詩則是地域包括邊塞內地, 寫与軍旅征戰生活有關的題材的詩歌, 其時間与生活限制与廣義邊塞詩差不多。(鄭家治, <試論杜甫的戰亂詩與邊塞詩>, 『Journal of Cheongdu Teachers College』 22권 2003, p.68)”

리켜 ‘복새’, ‘변새’, ‘하원지지’, ‘하도’, ‘하추’, ‘원인’이라는 표현이 흔히 쓰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 지역이 서울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중앙의 문화나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낙후된 곳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sup>23)</sup> ‘변새’란 본래 ‘오랑캐나 외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국경에 세운 성채’라는 뜻으로 흔히 邊方을 지칭하는 말<sup>24)</sup>로 쓰였으나 여기에서 변새의 공간은 단순히 실제 체험한 생활 장소의 의미만을 가지지 않는다. 변새라는 단어는 변새가 나누고 있는 두 장소, 중심과 그 너머라는 개념과 짝을 이루어야 하는데,<sup>25)</sup> 중심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어야 변새라는 단어도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즉, 중심과는 이질적인 영역과 중심이 서로 경계를 이루는 곳이 변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새의 의미를 반영한다면 ‘변새시’는 중심과 갈등, 대립되는 변방의 개념을 수렴하면서 주제에 이러한 인식이 드러나는 작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다시 말해서 변새시는 변새라는 공간을 상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변방에서의 고뇌와 시름 등의 특수한 인식을 반영한 시로 관념 속 상상이든 실제 체험이든 공간의 의미를 포함하는

23) 권경록, <변방에서 부르는 노래 경성, 부령, 종성>, 『문학 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국내편 2』 149면.

24) 이러한 변새의 의미에서 기존 논의는 일반적으로 변새의 지리, 풍토, 풍속, 軍旅 생활 등 변방과 관련된 소재를 이용한 작품을 변새시로 정의하였다. 김상일도 이러한 입장에서 변새시는 邊塞, 곧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국경의 鎭堡의 풍물과 그 지역의 풍물을 소재로 다룬 시를 말한다고 개념을 정리한 바 있다.

25) 崔庚鎭 앞 논문 154면.

26) 具本術, 『李安訥 邊塞詩의 研究』, 『韓國漢詩研究』 5, 2004, 305~306면 참조. 구본현은 논문에서 변새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입장은 문명과 비문명의 대립 상황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확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변새를 형상화하거나 이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정감을 형상화하고 있는 한시를 변새시라 할 수 있으며 변새를 단지 소재로 이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는 변새시에서 제외되며 작품의 주제와 정서가 변새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지 않는 경우도 변새시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邊塞 風情의 내용까지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새시를 광의의 의미로 확대시켜 변새에서의 전쟁 상황이 담긴 작품 및 ‘변새’라는 공간과 관련된 제재, 주제, 정서를 읊은 작품으로 보고자 한다. 특히, 변새라는 특수한 작시 상황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자아 형상에 주목하여 이안눌 변새시를 분석하고자 한다. 개별 작품의 분석<sup>27)</sup>은 주제별 내용과 意境<sup>28)</sup>, 정서, 수사적 표현방식 등을 기준으로 살펴볼 것이다.

### 3. 邊塞 風情의 시적 형상화 양상

#### 1) 지향하는 의지적 자아의 형상화 : ‘豪壯’

이안눌은 1599년(선조 32) 29세에 承文院權知副正字로 출사한 이래 1637년(인조 15) 67세로 죽을 때까지 평생 宦路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비록 주로 중앙의 관직이 아닌 지방관으로 재임하였으나 官人으로서 經世의 포부와 의지를 견지하였으며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에 소명에 충실하려는 남다른 의지를 보인다.

애국보은 하려는 기백을 표현한 이와 같은 ‘豪壯’의 작품 군은 작가가 ‘지향하는 의지적 자아의 표상’으로 볼 수 있다. ‘豪壯’은 호방하고 씩씩함을 뜻하는 말로 작가의 호방한 기상이 잘 드러나 있으며, 정경을 묘사한 것이 장대한 시들을 품평한 평어라 하겠다.<sup>29)</sup> 이 작품군은 대체로 의고의

27) 작품 분석에 있어서 표현방식과 미적 특질에 대한 논의는 팽철호의 『풍격론』(사람과 책, 2001)과 具本銜의 논문(2007)을 참고하였다.

28) 시적 대상이 시인의 내면에 감정이나 인식의 형태로 수용된 것이 ‘意’이며 ‘意境’은 문학적 형상화를 거친 ‘意’를 가리킨다. 전형대·정요일·최웅·정대립 『韓國古典詩學史』, 기린원, 1988 56~68면 참고

29) 정요일, 박성규, 이연세, 『古典批評 用語 研究』, 태학사 1998, 398면.

색채를 강하게 띠면서 관습화된 시어를 자주 차용하는 방식으로 ‘지향하는 의지적 자아’를 형상화한다.

### (1) 題古樂府詩

먼저, 제목에서 <從軍>이나 <出塞> 등의 중국 ‘古樂府’를 차용하여 시화한 작품이다. 이러한 古樂府詩 속 공간은 실제 체험의 생활공간인 함경도 경성과는 다르며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다소 과장된 면을 보인다. 擬古의 성격이 강한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은 시 속 상황을 조선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상이한 이질적 공간에 놓음으로써 새로운 미감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군에서 보이는 장면은 출병의 장면 같은 짧은 순간을 포착하여 제시하며 의성어 사용이나 강렬한 색채대비 등을 통한 감각적 표현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         |   |
|---------|---|
| 兵車曉出聲麟麟 | 병거가 새벽에 나서니 바퀴소리 빼격 빼격                              |
| 鐵騎蹴踏氷河裂 | 무장한 기병 밟으며 지나니 얼어붙은 강이 갈라지네                         |
| 龍旗焰焰半空赤 | 용의 깃발, 불타오르는 듯 허공에 붉고                               |
| 金甲寒光照玉雪 | 철갑옷 차가운 빛, 옥 같은 눈에 비치네                              |
| 將軍號令肅如霜 | 장군의 호령은 엄숙하기가 서리와 같아                                |
| 邊草蕭條飛鳥絕 | 변방의 풀 시들고 나는 새는 자취조차 끊어졌네                           |
| 陰風歔起吼大漠 | 서늘한 바람 문득 일어 큰 사막을 울리더니                             |
| 掃盡天山雲氣黑 | 천산을 쓸어버릴 듯 구름이 시커멓구나                                |
| 枯樺煙滅北落明 | 봉화 연기 <sup>30)</sup> 끊어지고 북락 <sup>31)</sup> 이 밝아오는데 |

30) 『史記·魏 公子列傳』에 “公子與魏王博，而北境傳舉烽”이라 하였다. 裴駰의 集解에 『文穎』를 인용하여 “作高木櫓 櫓上作枯樺 枯樺頭兜零 以薪置其中 謂之烽 常低之 有寇即火然舉之以相告”라 하였다. 이후 烽火臺를 ‘枯樺烽’이라 하였다.

燕支婦女無顏色

연지 땅 부너지는 안색이 창백하네

&lt;出塞曲&gt;, 권1 「北塞錄」 12면.

새벽에 출정하기 위해 진영을 나서는 전차와 전마의 천지를 진동하는 위용과 잘 다스려진 병사, 당당한 장군의 위엄을 그리고 있다. 그 위용과 기세에 변방의 자연 경관도 순응하는 듯 나는 새도 쥐 죽은 듯이 오간데 없고, 大漠에 불어오는 겨울 찬바람, 天山을 휘감은 듯한 검은 구름은 전장의 음산한 분위기를 더욱 돋군다. 이 때 봉화연기마저 끊어지니 저 오랑캐의 부녀자들 남편과 아버지를 잃을까봐 얼굴빛이 창백해진다는 것이다. 杜甫와 蘇軾의 작품을 點化하여<sup>32)</sup> 객관적인 시선으로 군대 출정의 긴장된 순간을 표현한다.

1구에서 4구까지는 출병하는 웅장한 장면을 兵車, 鐵騎, 龍旗, 金甲等에 대한 세밀한 묘사로 그린다. 새벽녘 떠오른 해가 용이 그려진 깃발과 갑옷을 비추는 아침 광경을 氷河, 半空, 玉雪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형상화한다. 5, 6구는 장군의 위용으로 변방의 풀과 새는 자취조차 끊어져 버린 황량한 분위기에 대하여 묘사한다. 이러한 표현에서 人事와 景物을 공교롭게 배치하여 앞 구의 시어가 지닌 의경을 이용하여 뒷 구의 시상을 연다. 7, 8구는 적막한 분위기 가운데 갑자기 陰風이 문득 일어 비바람을 몰고 오는 검은 구름이 하늘을 메우기 시작하는 모습을 그린다. 천산을 쓸어버릴 듯 시커먼 구름은 표면적으로는 진군을 가로막는 자연의 시련

31) 남쪽 하늘의 큰 별인 北落師門을 가리킨다. 『晉書·天文志上』에 “北落師門日星在羽林西南 北者, 宿在北方也: 落, 天之藩落也: 師, 衆也: 師門, 猶軍門也”라 하였다. 당 이백의 <司馬將軍歌>에 “北落明星動光彩, 南征猛將如雲雷”라 하였다.

32) 杜甫의 <兵車行>, “車麟麟, 馬蕭蕭, 行人弓箭各在腰”와 蘇軾의 <送曾仲錫通判如京師>, “玉帳夜談霜月苦 鐵騎曉出氷河裂”을 點化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표현이다.

을 의미하지만, 그 내포하는 바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싸워야하는 교전에 대한 두려움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10구는 출병한 군대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바라본 광경을 그린 것으로 그곳의 장정들이 몸을 피한 것인지 아니면 사냥을 떠난 것인지 연지 땅의 마을에는 오직 부녀자들만이 보인다. ‘無顔色’이란 표현은 창백한 안색을 말하기도 하고 화장을 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이중의 뜻을 지니며, 이는 ‘臙脂’의 출전인 ‘燕支’를 이용한 관습적 표현<sup>33)</sup>과 연결된다.

실제 從軍 상황을 반영하는 군사적 풍물과 풍광들이 출정의 처음과 끝 사이의 중요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으나 작품의 주 무대인 天山, 燕支, 北落 등은 관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곳이다. 특히 여기에서 새벽이라는 시간대와 龍旗, 金甲의 분명한 색채감의 모순은 관습적인 상상력으로 인하여 현실과 괴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마지막 결말 부분에 가서야 비로소 동이 터 음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색감의 묘사라 하겠다. 이는 지향하는 의지적 자아의 형상인 출정하는 장병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그리기 위해 다소 과장되고 모순된 관습적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                                 |
|---------|---------------------------------|
| 白龍堆上曉雲空 | 백룡퇴 <sup>34)</sup> 위로 환한 구름 걷히자 |
| 一片塞月光如水 | 한 조각 변방의 달은 물처럼 밝네.             |
| 朔風蕭蕭動枯草 | 북풍은 쓸쓸히 마른 풀을 바스락거리게 하고         |
| 烏鳶飛集單于壘 | 까마귀와 솔개는 선우족의 보루 위에 날아 모이네      |

33) 燕支: 원래 여자들이 화장할 때 양쪽 뺨에 찍는 紅粉인 ‘臙脂’와 같다. 燕支草가 나는 흉노의 燕支山에서 유래하였다. 흉노가 이 산을 잃었을 때 “失我燕支山 使我婦女無顔色”이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한다.

34) 白龍堆: 흉노가 살던 사막의 이름.

|         |                                     |
|---------|-------------------------------------|
| 日暮攢金征馬回 | 해 떨어지자 쇠북 두드리며 길 나섰던 말 돌아<br>오는데    |
| 紅旗半捲清霜裏 | 붉은 깃발은 맑은 서리 속에서 반쯤 말렸구나            |
| 陣前齊唱破陣曲 | 진영 앞에서 일제히 ‘파진곡’ <sup>35)</sup> 부르니 |
| 壯士歡聲四面起 | 장병들의 탄성이 사방에서 일어나네                  |
| 劒花秋蓮鎖玉匣 | 가을날의 연밥 같은 칼 빛을 옥갑에 감춰두니            |
| 長城屹立三千里 | 긴 성은 삼천리에 우뚝 솟았구나.                  |

<入塞曲>, 권1 「北塞錄」 13면.

출정을 마치고 군막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그린 작품으로 白龍堆, 單于壘, 破陣曲 등은 흔히 나오는 시어로 변경의 풍경과 군대의 위용을 묘사한 부분에도 擬古의 흔적이 강하게 드러난다. 특히, 제 3구는 唐 劉長卿의 <疲兵篇>에 보이는 “朔風蕭蕭動枯草, 族旗獵獵榆關道”를, 제 9구는 李白의 <胡無人>에 보이는 “流星白羽腰間插 劒花秋蓮光出匣”의 표현과 거의 유사하나 시상 전개를 따라 의경 묘사의 양상을 살펴보면 종군에서 느끼는 직접 체험의 흔적이 드러난다.

1구에서 4구까지는 해질녘의 풍경을 묘사하는 것으로 어스름한 저녁 한 조각 뜬 달과 마른 풀에 부는 스산한 바람은 황량한 광경뿐으로 다소 불안한 긴장감이 감돈다. 5구에서 8구까지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군대의 상황묘사로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환하는 성취감과 안도감이 破陣曲의 노랫소리에 묻어난다. 9,10구에서는 장병으로서의 직임을 완수한 감격을 풍경으로 치환시켜 표현하였는데 갑 속의 칼은 용맹함과 임무에 대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갑 속에서 빛나는 칼은 임무를 기다리는 壯士의 모습을 상징하고 삼천리에 우뚝 솟은 성은 오랑캐의 침입에 견딜 수

35) 破陣曲: 破陣樂. 당태종이 秦王일적에 劉武周를 정벌할 때 군중에서 지은 음악 이름, 즉위 후 연희 때 반드시 이 음악을 연주하였다.

있는 견고한 국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객관적 서술로 관습적 지명을 사용하여 다소 천편일률적으로 전형화된 풍경을 읊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 종군하는 壯士의 소명의식을 표출하고 나라의 안위를 소망하는 ‘의지적 자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비록 ‘題樂府詩’가 제목이나 시어의 사용에 있어서 관습적 의고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자신의 종군 체험이 투영되므로 다른 작가가 상상만으로 쓴 변새시와는 구별된다.

다음 작품도 의고의 표현 기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종군 체험을 시 속에 투영시켜 황량한변새 풍광과 호기로운 壯士의 모습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형상화한다.

|       |                                |
|-------|--------------------------------|
| 自作三軍佐 | 삼군의 보좌관이 되어서야,                 |
| 仍成萬里遊 | 머나먼 변방에 노닐게 되었네                |
| 風生白羽扇 | 바람은 하얀 부채에서 일고                 |
| 雪擁黑貂裘 | 눈보라 검은 갑옷에 쌓인다.                |
| 敎陣臨河泮 | 병사 훈련시켜 물가 언덕에 대고              |
| 移營出壘頭 | 군영을 옮겨 언덕 머리를 나선다.             |
| 小儒君莫笑 | 겁쟁이 선비라고 비웃지 말라                |
| 行取義陽候 | 이래봐도 행동은 의양후 <sup>36)</sup> 라네 |

|       |                       |
|-------|-----------------------|
| 歲暮居延路 | 한해가 저무는 변방의 길         |
| 嚴風透戰袍 | 살을 애는 바람 전포를 뚫고 스민다.  |
| 馬跑關雪暗 | 말은 어둑한 북관의 눈 굽어 파고    |
| 雕放積雲高 | 수리는 사막의 구름 위 높이 떠 있네. |
| 保國身方健 | 나라 위한 몸 튼튼하니,         |

36) 義陽候 : 傅介子. 漢나라 義渠 사람으로 昭帝 때에 駿馬監이 되어 大宛에 사신으로 가서 樓蘭의 왕을 참수하여 돌아와 이 공적으로 의양후에 봉해졌다.



臨邊氣益豪 변방의 선 기개 더욱 커지네  
 長歌塞下曲 길이 새하곡을 부르며  
 含笑看霜刀 서릿발 칼날을 웃으며 보노라

<從軍行> 二·三首 권1 「北塞錄」 11면.

2수는 삼군의 보좌로 변새에서 종군하는 병영 생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자신의 포부를 드러낸다. 눈보라가 전포를 뚫고 스며드는 변방의 엄혹한 추위 속을 걸어가는 행군, 군막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훈련을 해야 하는 거친 군영 생활은 한가롭게 자연을 玩賞하던 유자의 생활과는 확연히 다르다. 혹독한 자연환경과 병영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유생이지만 행동은 의양후에 못지않은 용감한 기상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3수는 嚴風, 關雪 등의 혹독한 변방 날씨에도 애국충정에 찬 작가의 호방한 기상을 드러낸다. 1~4구는 살을 에는 바람과 북새의 눈이라는 표현을 통해 변방 지역의 추위와 험난함을 묘사하고 5~8구는 자신의 변방에서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씩씩한 기상을 표출한다. 나라 위한 자신의 몸을 강조하면서 임무에 대한 충성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호방한 기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악부시 ‘塞下曲’을 부르며 의기를 고취하고 서릿발 칼날을 응시하며 약한 유생의 티를 벗어나 호기를 기르겠다는 강렬한 다짐이 전편에 넘친다. 전반부의 험한 변방 묘사에서의 차갑고 황량한 이미지는 노래와 웃음의 희망찬 이미지와 대조되어 변새에서의 굳센 기개가 더욱 강하게 부각된다. 이 작품에서도 白羽扇, 黑貂裘, 義陽候, 塞下曲 등의 관습적 표현이 쓰였으나 다른 題樂府詩에 비하여 삼군의 보좌관으로서 종군하는 자신의 모습을 작품에 투영시켜 ‘지향하는 의지적 자아의 형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 (2) 題朝鮮地名

다음은 조선의 지명을 제목으로<sup>37)</sup> 한 작품들로 앞서 논의한 題樂府詩에 비하여 실제 공간의 의미가 두드러지며 대체로 男兒, 男子, 丈夫, 壯士와 같은 범칭의 인물 형상을 통해 작가 자신이 지향하는 용맹스러운 의지적 자아의 모습을 표출한다.

|         |                               |
|---------|-------------------------------|
| 北庭都護大將軍 | 북정도호부의 대장군께서                  |
| 十月翻營古塞門 | 10월에 옛 변방의 군영을 순시하시네          |
| 河際長城封漢地 | 강가의 긴 성은 한나라 땅을 두르고 있고        |
| 石頭高壘壓胡雲 | 바위 위의 높은 보루는 오랑캐 구름을 누르고 있네   |
| 天寒曉色天旗動 | 추운 하늘 새벽 빛은 천 개의 일렁이는 깃발이요    |
| 日落邊聲萬馬喧 | 지는 해 변방의 소리는 만 마리의 말의 울음 소리라네 |
| 見說單于仍遠遁 | 선우가 이에 멀리 도망쳤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리니   |
| 黑山從此絕妖氛 | 이로부터 흑산에는 요사스러운 기운이 끊어지리라     |

<奉陪李節度使-守一-北巡邊城而作近體九首中1首, 會寧府><sup>38)</sup>

북방의 군영을 순시하는 절도사를 수행하며 지은 시이다. 절도사에 대한 칭송을 표현해야하는 시로 역시 의고의 성격을 띠고 변새시풍에 자주 쓰이는 상투적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작품 속 '北庭'은 당나라의 鎮을 가리키는 것으로 북정도호를 겸하는 절도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1, 2구는 절도사가 순행에 나서는 광경을 표현하는데 작가의 실제 종군

37) 이안눌은 다른 시기에 쓴 권록을 살펴보아도 조선의 인명과 지명 등을 시어로 자주 활용하였다. 고유명사를 시어로 쓰는 것은 잘못은 아니나 조선의 인명과 지명을 시어로 쓰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으며, 그 예로 최경창은 조선의 지명이 중국의 지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고, 조위한은 비속하다는 이유로 조선의 지명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홍만중도 조선의 지명은 시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다.

38) <奉陪李節度使-守一-北巡邊城而作近體九首中1首, 會寧府>, 『北塞錄』 10면.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적 긴장감이 배가되어 더욱 豪壯한 미감이 만들어진다. 3, 4구는 변방의 풍경을 묘사한 부분이다. 두만강을 따라 펼쳐진 장성은 한나라의 영토임을 표시하고 험난한 바위 위의 보루는 오랑캐 땅의 구름보다도 높다. 여기에서 ‘封’은 영토의 나뉘름을 의미함과 동시에 華夷를 구분하기 위해 선택된 시어이다. 성과 견고하여 오랑캐가 넘보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즉, 방비에 틈이 없는 것은 절도사의 위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절도사에 대한 칭송을 경물에 대한 묘사로 담아낸다. 5, 6구는 순행에 나선 군대의 씩씩한 위용을 묘사한 부분으로 새벽녘과 해질녘의 풍광을 대조하고 다시 쇠락과 생동의 이미지를 대조한다.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를 대조의 기법을 사용하여 수많은 깃발이 펄럭이고 수많은 군마가 울음소리를 내는 변방의 정경을 그려낸다. 7, 8구는 오랑캐가 두려워 도망쳤으니 앞으로 근심이 없으리라는 칭송의 뜻을 표현하는데, 성과와 보루를 견고히 하는 것은 책임자로서 완벽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뜻이 된다. 北庭, 單于, 黑山 등의 관습적 시어를 차용하고 과장과 대조의 수사법으로 절도사를 상투적으로 칭송하지만 실제 종군의 체험을 반영하므로 더 생동감 있게 와 닿는다.

다음의 <雲頭城>에서도 종군 체험을 드러내는 용감한 의지적 자아 형상은 丈夫의 인물 형상에 투영되어 작가 자신의 호장한 기상과 애국적 충정을 나타낸다.

|       |                          |
|-------|--------------------------|
| 轟轟雲頭城 | 우뚝 솟은 운두성 <sup>39)</sup> |
| 下枕長河灣 | 그 아래로 긴 하만을 누이고          |
| 巖崖幾千丈 | 깎아지른 절벽은 몇 천 장일런가        |

39) 『新增 東國輿地勝覽』, 會寧都護府, 古跡條 “在府西五十里 石城周一萬七千四十尺 內有一川三井 今廢”

|       |                               |
|-------|-------------------------------|
| 巉絕不可攀 | 가파르게 끊어져 잡을 수 없어라             |
| 下馬步躊躇 | 말을 내려 머뭇머뭇 걸어가서는              |
| 顧眄開愁顏 | 돌아보며 수심의 얼굴을 펴노라              |
| 玄冬天地肅 | 한 겨울이라 천지가 엄숙한데               |
| 朔風振枯菅 | 북풍은 마른 왕골에 불고                 |
| 單于古臺上 | 선우의 옛 누대 위에는                  |
| 慘淡雲氣頑 | 참담한 구름기운 서려있다                 |
| 杖劒背落日 | 칼 짚고서 지는 해를 뒤로하며              |
| 笑指闕氏山 | 연지 <sup>40)</sup> 산을 가리키며 웃노라 |
| 手撚鐵絲箭 | 손에 철사의 화살을 쥐어 잡고              |
| 弓如明月彎 | 활을 밝은 달처럼 굽혀서는                |
| 仰落雙雁飛 | 우러러 나는 한 쌍의 기러기를 떨어뜨리며        |
| 俯雉雉子斑 | 허리 구부러 얼룩짐의 꿩을 쏜다.            |
| 從軍良所樂 | 종군의 일은 실로 즐길만하여               |
| 浩歌心自閑 | 호쾌한 노래에 마음은 절로 한가롭네           |
| 丈夫四方志 | 사방에 장부의 큰 뜻 두었으니              |
| 何問夷與蠻 | 어찌 오랑캐와 왜적을 물으랴               |
| 揮鞭出門去 | 채찍을 휘갈기며 관문을 나설때는             |
| 有去無思還 | 가서 살아 돌아올 생각 없어야 하는 법         |
| 馳驚及少壯 | 말을 치달리는 기운 젊은이와 다름없으니         |
| 不復數險艱 | 다시는 험난함 따위 헤아리지 않다가           |
| 終當披介冑 | 마침내 갑옷을 벗고는                   |
| 沒身沙磧間 | 모래벌에 몸을 묻어야 하리                |
| 誰如班定遠 | 누라서 반초처럼                      |
| 生入玉門關 | 살아서 옥문관을 들어올 수 있을까            |

〈雲頭城〉, 권1 北塞錄, 8면.

40) 闕氏 : 흉노의 선우나 제왕의 妻를 가리키는데 연지산은 곧 燕支山이다.

부임지인 경성에 도착하여 근처에 있는 雲頭城을 돌아보며 기개를 토로한 작품이다. 고시 형식을 취한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단락은 처음부터 10구까지로 변방 지형과 기후의 험난함을 묘사하고 있다. 둘째 단락은 11구부터 18구까지로 변방의 종군 실상을 묘사한 후, 마지막 단락은 19구부터 끝까지로 종군자로서의 다짐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

丈夫는 호장한 기상을 표상하는 범칭의 인물 형상으로 실제 종군하고 있는 작가 자신의 의지를 투영시켜 표현할 수 있다. 전반부에서 ‘巖崖’, ‘巖絶’ 등의 묘사로 운두성의 웅장하고 崎險한 경관을 제시하고, 이어서 그 곳에서 종군하는 자로서의 기상과 자세를 그린 후, 후반부에서는 변방의 방비를 위한 장부로서의 기백을 ‘班超’의 전고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전반부는 주로 자연 경관의 광활한 풍광을 묘사하고 후반부에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해야한다는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호기로운 기상으로 시작된 시상이 비장함으로 연결되어 끝맺는다.

그런데 마지막 구에서 작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소재로 선택된 ‘班超’라는 인물은 작품 이해를 위해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반정원은 원래 晝生 출신이었으나 봉후에 뜻을 두고 붓을 내던진 후 서역을 개척한 後漢의 장군으로 변새시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즉 이안눌이 이상적으로 설정한 인물은 文弱에 빠져 쓸데없이 붓이나 놀리는 晝生이 아니라 武를 겸비하여 천하를 평정하는 공을 세운 인물이라는 점이 부각되는 것이다.

특히, 이안눌이 강조하고자 하는 반초의 면은 어려운 전란의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 반초라는 인물의 모습은 자신의 의지적 형상과 중첩되면서 문무를 겸비한 晝劍客의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칼을 쥐고 오랑캐 땅을 굽어보며, 활을 힘껏 당겨 천지에 노니는 새들을 겨누며 기개를 펼친 후, 자신은 서생으로 서역의 길을 텃던 반정

원처럼 살아서 옥문관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되새기면서 대장부의 기상과 기백을 토하고 있는 작품이다.

다음의 <嶺東館>에서도 변방의 풍광에 대한 묘사와 어우러진 男兒의 기상과 호기를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                        |
|-------|------------------------|
| 鳥道關山外 | 관문의 산 밖으로 난 험한 길에      |
| 秋高日易陰 | 가을이 한창이라 해가 쉬 지는구나     |
| 星分南斗遠 | 별자리 나뉘어 남극성은 멀기만 하고    |
| 地入北冥深 | 땅은 북쪽 바다 깊숙한 곳까지 들었네   |
| 區域并夷夏 | 이 지역은 오랑캐와 중국이 함께 있는 곳 |
| 風雲自古今 | 바람과 구름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네   |
| 四方男子志 | 사방에 둔 남아의 뜻으로          |
| 長嘯此登臨 | 길게 휘파람 불며 여기에 올랐네      |

<嶺東館>, 『北塞錄』 8면.

1, 2구는 먼 경치를 그린 것으로 펼쳐진 전경을 바라보니 관문의 산 밖으로 위태로운 길은 구불 구불하고 가을이 되니 해가 짧아져 쉬이진다. 3, 4구는 하늘과 땅을 대비하여 변방의 광활함을 그리는데 배경으로서의 하늘과 땅은 남극성과 북쪽 바다로 나뉘어 대립한다. 5, 6구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활용하여 변방을 묘사한 부분이다. 변방은 경계의 구역으로 중화의 공간인 동시에 오랑캐의 공간이기도 하다. 바람과 구름은 전란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갈등으로 인한 변방의 험난함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역사적 특수성을 표현한 부분이다. 古今과 夷夏가 대립되면서 변방이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자신의 비장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이다. 마지막 구의 ‘長嘯’은 천하에 뜻을 둔 대장부의 기상을 암시하는 것으로 豪壯한 면모를 상징한다.

이러한 夷夏의 대립적 인식은 “가을 바람이 목릉관을 불어 넘어오는데 / 밧걸음이 사막에 다하였느니 어느 날에나 돌아올까/ 서쪽으로 장안을 바라보니 이천리나 먼데(秋風吹度穆陵關 行盡黃沙幾日還 西望長安二千里 撫夷城上倚天山<sup>41)</sup>”에도 드러난다. ‘長安’과 ‘天山’등은 변방을 의미하기 위하여 관습적으로 선택한 중국의 지명이다. 1구와 2구의 경치에 대한 묘사는 중군의 소임을 방해하는 시간적·공간적 장애물에 해당하며 3구의 ‘長安’은 변방의 상대 개념인 ‘中華’를 상징하며 작가가 지향하는 소망의 세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4구에 이르러 실제 지명인 ‘撫夷城’에다 오랑캐 무찌르는 배경으로 자주 사용되는 ‘天山’을 결합하여 의지와 기상을 표출한다. ‘오랑캐를 다스린다는 ‘撫夷’가 시상 전개 의 중심축이 되는 것이다.

“평생토록 백우선을 들고/그저 오랑캐가 일으키는 모래 먼지 잠재울 수 있었으면(平生白羽扇 直擬靜胡塵)<sup>42)</sup>, “백년을 나라 근심하며 부질 없이 검을 부리다/만리 밖에 중군한 이 몸 다시금 시를 지어보노라(百年憂國空彈劍 萬里從戎更賦詩)<sup>43)</sup>, “관새에서는 행역을 멀리 나왔다고 말하지 말라/시구나 만지는 서생이 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니(關塞莫論行役遠 直勝章句作書生)<sup>44)</sup> “남아가 중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 면/그저 인간세상의 한 아낙일 뿐이리(男兒不解從軍樂 只是人間一婦人)<sup>45)</sup>” “남아는 의기를 중히 여김에 어려서부터 영웅을 사모하였네. 문서나 만지작거리는 일 던져둔 지 이미 오래되었고 갖근 풀기를 더없이 부지

41) <題撫夷堡> 「北塞錄」, 11면.

42) <吉州途中>, 「北塞錄」, 6면.

43) <奉陪李節度使-守一-北巡邊城而作近體九首中5首>, <穩城府>, 北塞錄, 10면.

44) <奉陪李節度使-守一-北巡邊城而作近體九首中2首>, <高嶺鎮>, 「北塞錄」, 10면.

45) <奉陪李節度使-守一-北巡邊城而作近體九首中8首>, <阿山堡>, 「北塞錄」, 10면.

런히 칭하였네(男兒 重意氣 少小慕英芬 班筆投仍久 終纓請更勤)<sup>46)</sup> 등에서 나타나는 ‘男兒’는 특정한 인물형상이 범칭의 인물 형상으로 이러한 ‘擬古’의 틀이 강한 시 작품에서 ‘壯士’, ‘丈夫’, ‘男兒’, ‘男子’ 등의 형태로 빈출한다. 범칭의 인물형상을 통하여 작가가 지향하는 굳센 기상을 가진 의지적 자아의 형상을 표출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豪壯’의 미감을 주로 하고 ‘지향하는 의지적 자아를 형상화’ 하는 작품의 경향은 의고의 성격을 띤 관습적 표현을 많이 써서 다소 윤색된 공간으로서의 변세 장면이 제시된다.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감각적 시상을 통한 색채의 강렬한 대조, 지나친 과장의 방식을 자주 사용하며 시점도 ‘丈夫’, ‘男兒’, ‘男子’, ‘壯士’ 범칭의 인물 형상의 형태로 자주 표현된다.

## 2) 실의한 현실적 자아의 형상화 : ‘悲慨’

현실적 자아인식과 관련된 변세시는 앞서 살핀 의지적 자아의 형상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建功入業에 대한 이상과 포부를 제대로 펼칠 수 없는 작가의 처지와 변세에서 겪는 현실의 고초는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하는 일 없이 변세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현실적 모습은 포부를 펴지 못한 좌절된 현실적 자아로 인식되어 그 왜소함이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의한 비애감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 자아를 표상하는 작품은 직설적 언술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앞 장에서 살펴본 ‘지향하는 의지적 자아 형상’의 표출이 의고의 방법을 자주 구사하면서 豪壯의 기개를 표현함으로써 개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실의한 현실적 자아

46) <幕府述懷 二十二韻>, 『北塞錄』, 11면.



형상'의 표출은 실제 경험을 직접적 언술 방식으로 '悲慨'의 미감을 드러냄으로써 변세에서의 현실 생활을 구현해내는 특징이 있다.

이상과 달리 실제로는 별 할 일 없는 변세에서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경세에 보탬이 될 수 없다는 현실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좌절감이 드러난다. 이러한 좌절감은 자신의 뜻과 재주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감개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좌절과 슬픔의 표출 방식은 때로는 직설적 언술로 다소 격하게 토로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을 절제하여 내면에 가라앉힘으로써 처연하고 담담한 어조로 자연스럽게 드러내기도 한다.

### (1) 내적 갈등의 직접적 토로

변세에서 겪는 갈등은 주로 풍설이 몰아치는 혹독한 추위나 험한 산세의 지형과 관련을 맺고 일인칭의 시적 화자가 등장하여 직설적 언술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시에서도 관북 지역 변세에서 맞는 혹한의 기후에 대한 어려움과 고뇌를 직접적으로 토로한다.

|       |                                  |
|-------|----------------------------------|
| 十日十大風 | 열흘이면 열흘 큰 바람 불고                  |
| 五日五大雪 | 닷새면 닷새 큰 눈 내리네                   |
| 雪落千丈積 | 눈은 내렸다하면 천길 깊이로 쌓이고              |
| 風振萬木折 | 바람 불었다하면 모든 나무가 꺾이어 버린다          |
| 本是苦寒地 | 본디 몹시도 추운 땅이거늘                   |
| 況乃苦寒節 | 하물며 더없이 추운 계절임에라                 |
| 玄冥弄陰機 | 겨울의 신이 교묘한 장치를 돌려                |
| 顛頊威甚烈 | 전욱 <sup>47)</sup> 의 위세 더없이 맹렬하구나 |

47) 顛頊: <史記-五帝本紀>黃帝의 손자, 昌意의 아들로 아들은 鯀, 손자는 禹王이다. <淮南子>의 天文訓에 그가 共工과 제위를 놓고 다투었는데 그 때 공공의 힘이 넘쳐 不周山에 있는 天柱를 부러뜨려 이 때문에 하늘은 북서로 기울고 일월성신은 북

|       |                           |
|-------|---------------------------|
| 慘慘頑雲興 | 어두컴컴하니 꿈쩍도 않는 구름이 일자      |
| 稜稜朔氣竭 | 오싹하던 한기도 다해버렸네            |
| 羲御東南馳 | 태양은 동남으로 치닫기만 하나니         |
| 豈肯廻其轍 | 어찌 그 수레바퀴 돌리려 하랴          |
| 天地晝黯黮 | 어둠 침침한 가운데 천지가 흑분되어 있으나   |
| 短晷難爲晰 | 짧은 햇살로는 밝히기 어려워라          |
| 氷峯矗層穹 | 얼음 봉우리가 층진 하늘에 빼곡하고       |
| 澣海流澌結 | 북해에서 얼음덩이가 흘러내리네          |
| 陽春何時到 | 따뜻한 봄날은 언제 오려나            |
| 品物恐盡滅 | 온갖 만물이 어찌면 다 사라져버리겠네      |
| 虬龍死幽壑 | 용도 그윽한 골짜에서 죽어버리고         |
| 羆豹僵深穴 | 곰이며 표범도 깊은 동굴에서 뺏뺏해졌네     |
| 而我無生意 | 내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나니          |
| 肌膚凍欲裂 | 살갓이며 살점이 얼어터지려 하네         |
| 熾炭不覺暖 | 탄을 피워도 온기를 느낄 수 없고        |
| 挾纊冷若鐵 | 솜뭉치를 끼고 있어도 차갑기는 쇳덩이와 같아라 |
| 爲語南州人 | 남쪽 고을의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나니      |
| 勿嘆南州熱 | 남쪽 고을이 덥다 한탄하지 말라         |
| 寧作南州鬼 | 차라리 남쪽 고을의 귀신이 될지언정       |
| 不願北門活 | 북문에서 살고 싶지 않다네            |
| 北門歌正悲 | 북문에서 노래하자니 더없이 서글퍼지는데     |
| 聽者亦悽咽 | 듣는 이도 서글픔에 목이 메이누나        |
| 悽咽莫重陳 | 서글퍼 목이 메이는 얘기 다시 늘어놓지 말게나 |
| 北門不可說 | 북문은 말로 할 수 없으니            |

<北門行> 「北塞錄」 12면.

서를 향해 운행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시의 형식으로 서두부터 苦寒地, 苦寒節에 겪는 大風, 大雪의 기후를 숫자와 함께 표현하면서 변새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묘사한다. 추위와 관련된 顛顛을 차용하여 동남으로만 치닫는 태양을 원망하면서 따뜻한 봄이 어서 오기만을 바란다. 혹한으로 인해 만물이 다 사라져 버리겠다고 하면서 1인칭의 시점을 사용하여 “我無生意”라는 극단적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한다. 탄을 피워도 온기 없고 솜을 끼고 있어도 추위 속에서는 쉼터가 같이 느껴질 뿐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남쪽 고을 사람들은 덥다고 불평 말라고 하면서 남쪽 고을 귀신이 될망정 북문에서 살지 않겠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낸다. “北門歌正悲”와 “北門不可說”의 표현은 반복과 대구를 이용하여 작가가 처한 변방에서의 서글픔과 비애를 가감 없이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갈등의 토로가 중심이 되는 직설적 언술 작품에는 ‘我’, ‘吾’와 같은 일인칭 시점의 표현이 작품 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내 변경의 요새로 왔나니/관문과 준령이 대궐을 가로 막고 있구나/봄이 와도 돌아갈 수 없는데/마음 속 생각 다투어 더불어 논하라...고개 숙여 고요히 스스로 탄식하다가/저 존엄한 북극성을 우러러 보았네(我來榆塞外 關嶺隔天闔 逢春歸不得 幽思誰與論)<sup>48)</sup> “인정이란 구름이 비가 되듯 변하고/세로엔 모진 바람과 거센 파도/예로부터 이미 이와 같았거늘/ 나의 행역은 만만바 운명과 같으리(人情變雲雨 世路劇風濤 自昔既如此 我行唯所遭)<sup>49)</sup>, “내일이면 나이가 서른/ 내 고향은 길이 1천리/미친 듯이 도모하다 스스로를 그르치게 하였나니/홀로 앉아 검을 바라보노라(明日年三十 吾鄉路一千 狂圖成自誤 獨坐看龍泉)<sup>50)</sup>의 표현에서 작가의 이상이 실현되지

48) <鏡城府評事衙後 有方庭 可一畝許余於春日>, 『北塞錄』, 15면.

49) <咸關嶺>, 『北塞錄』, 7면.

50) <除夜, 二首>, 『北塞錄』, 13면.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 함께 나타난다.

다음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실의한 현실적 자아의 형상은 시점이 일치된 일인칭 화자의 직접 언술 형식을 통해 상황에 대한 묘사가 더욱 생생하게 와 닿는다.

|         |                             |
|---------|-----------------------------|
| 評事爲官古掌書 | 병마평사는 옛날엔 문서를 관장했는데         |
| 只今閑與野僧如 | 지금은 한가하기가 시골의 중과도 같네        |
| 三春幕下棋消日 | 삼춘을 막하에서 바둑으로 소일하고          |
| 萬事人間丞負餘 | 만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참모로 남은 일을 책임지네 |
| 携鏡可堪身易老 | 거울을 들면 몸이 쉬 늙어 감을 알 수 있는데   |
| 請纓方覺計偏疎 | 벼슬을 구하고서야 비로소 계책이 엉성함을 알았네  |
| 最怜玉匣雙龍劍 | 가장 안타깝기는 옥갑 속의 쌍룡검          |
| 紫氣猶能射碧虛 | 자줏빛 기운이 아직 푸른 하늘을 쏠 수 있거늘   |

〈幕府書懷〉, 『北塞錄』 17면.

이 시에서 보이는 시적 자아의 모습은 앞 장에서 살핀 ‘지향하는 의지적 자아’의 형상과는 다르다. 1,2구에서 병마평사의 직임이 시골의 한가한 중과 같다고 하면서 3,4구에서는 바둑으로 소일하는 일상, 5,6구에서는 벼슬을 구하는 자신의 계책이 엉성함을 직설적 언술을 통해 토로한다. 마지막 구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옥갑 속 ‘雙龍劍’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발휘하지 못하는 자신의 기개와 재주를 안타까워한다. 이러한 옥갑 속에서 쓸 수 없는 칼의 이미지는 사공도의『二十四詩品』‘悲慨’조에 등장하는 인물과 연결된다. 인물의 형상은 “-(전략) 대도가 날로 멀어지니/ 큰 재주 어디다 쓰리/ 장사는 칼을 어루만지며/ 끝없는 슬픔에 잠긴다/ 우수수 낙엽은 지고/ 푸른 이끼에 빗방울 듣는다(大道日往/若爲雄才/壯士拂劍/浩然彌哀/蕭蕭落葉/漏雨蒼苔)로 그려지는데 ‘悲慨’에서 전편을 뒤덮고

있는 슬픈 분위기 속에 강한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sup>51)</sup> 글자 그대로 ‘悲’자가 나타내는 슬픈 분위기와 ‘慨’자가 나타내는 강개함이 잘 나타나있다. 그런 비애와 강개는 칼을 어루만지면서 슬픔에 잠겨 있는 ‘壯士’의 형상에 집약되어 있다.

“변경의 얼음과 서리로 병이 들려 하여/봄바람 벗 삼아 고향으로 돌아 가려네/서생이 막부를 보좌하면서 무슨 일을 이루었던가/하인들 곡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던 걸 웃어넘겼네”(絶塞氷霜病欲纏 春風作伴便歸田 書生佐幕成何事 却笑官僮哭徹天)<sup>52)</sup>, “세월은 덧없이 흘러 추위와 더위가 바뀌고/세상사 기구하여 시비가 많아라/진퇴의 때를 알아 서로가 머물 곳을 얻어야 하건만/탄식하나니 육체의 부림을 받아 마음과 어긋나게 되었구나(天時荏苒遞寒暑/世路崎嶇多是非/避就識時俱得地/自嗟刑役與心違)<sup>53)</sup>”의 표현에서도 실의한 자신의 처지로 인한 출처 갈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면서 悲慨의 미감을 드러낸다.

## (2) 절제된 슬픔의 담담한 슬회

변방지역의 이국적 풍광과 더불어 겪게 되는 회향의 정서를 반영한 작품으로 정감이 진실되고 뜻이 간절하면서도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연상을 통한 이러한 담박한 정조는 다른 어떤 형식보다 더한 여운으로 남아 절절한 그리움과 슬픔의 정조를 효과적으로 형상화 한다. 변세라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공간이지만 생활 공간에서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담담한 한 폭의 그림 같이 그려내는 정

51) 팽철호, 앞 책, 108~109면 참고.

52) <庚子三月二十日 發鏡城還京>, 『北塞錄』, 17면.

53) <三月三十日癸酉 題吉州館 去年九月三十日丙子 亦留于此 故書以志感>, 『北塞錄』, 17면.

감 표현 방식은 전대와 구분되는 새로움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감각적 시상을 이용한 극적인 단상으로 종군자로서 겪는 아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한 시이다.

|         |                                 |
|---------|---------------------------------|
| 絕塞從軍久未還 | 궁벽한 변경에서 종군하는 몸 오래도록 돌아가지 못하였는데 |
| 鄉書雖到隔年看 | 고향에서 보낸 편지 도착해도 해를 넘겨 보는구나      |
| 家人不解征人瘦 | 집사람은 집 떠난 내가 마른 것을 알지 못하여       |
| 裁出寒衣抵舊寬 | 겨울 옷 마름질 하면서 옛 옷처럼 헐렁하게 하였네     |

〈得家書〉, 권1 「北塞錄」 18면.

아내가 보내준 옷과 편지를 받아본 후 느끼는 심정을 담담히 서술한 작품으로 변방에서 북평사로 종군하는 작가의辛苦가 효과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이 시의 탁월한 묘미는 담담히 묘사된 단상 속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내의 애틋한 마음까지도 그려내는 의경의 창조에 있다. 시상의 전개는 편지에 동봉한 옷을 입어본 내용을 사실대로 기술하고 있을 뿐, 자신의 반응은 문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전의 치수대로 마름질한 옷이 헐렁해질 만큼 과리하게 마른 몸은 타향에서의 客苦를 의미하고, 작가의 처한 곳은 고향에서 보낸 편지를 해를 넘겨야 볼 수 있을 만큼 멀리 떨어진 변경이다. 그곳에서 지내는 남편의 실상을 짐작하기 어려운 아내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남편의 옷과 같이 마름질하여 보낸 것이다. 비록 아내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어떠한 화려한 수식보다도 더한 애절한 서글픔이 묻어난다. 꾸밈을 의도하거나 다른 기교와 재주를 부린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변경의 외지에서 오래도록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겨울날 아내가 보내온 옷과 서신을 받은 일

상적 사연을 담담히 서술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 어떤 표현보다도 슬픈 미감을 만들어낸다.

|         |                           |
|---------|---------------------------|
| 欲作家書說苦辛 | 종군의 辛苦 적어 보내고 싶지만         |
| 恐教愁殺白頭親 | 백두의 노친 걱정시키는 일될까 두려워      |
| 陰山積雪深千丈 | 변경의 산에 천길 깊이로 눈이 쌓였어도     |
| 却報今冬暖似春 | 도리어 이 겨울이 봄처럼 따뜻하다 써 보내네  |
| 塞遠山長道路難 | 변경은 멀고 산 길게 이어진데다 길도 험난하니 |
| 蕃人入洛歲應闌 | 변방 사람 서울에 들어가려면 한해가 저물겠지  |
| 春天寄信題秋日 | 봄에 부치는 편지에 가을날을 적어 답하는 것은 |
| 要遣家親作近看 | 가친께서 최근에 받아보았다 믿게 함이네     |

<寄家書>, 권1 「北塞錄」 19면.

앞서 살펴본 <得家書>에 대한 답으로 집에 부치는 편지로 쓴 시이다. 동일한 시상의 전개 방식으로 자신의 客苦를 절절하게 담아 종군의 어려움과 모친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고 있다. 변경에서 종군하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써 보낼 수 없는 것이 가족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며, 특히 백발의 노친이 계시므로 더욱 그렇다. 1수와 2수에서 모두 변세 지역의 자연 경물은 작가의 애절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해주는 장치가 된다.

1수는 변경의 산에 쌓인 눈이 천 길이나 되어도 노모를 걱정 끼칠까 두려워 오히려 봄처럼 따뜻하다고 하는 깊은 배려가 배어 있다. 2수에서도 산은 길고 길도 험난한 머나먼 변방이기에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을 예상하고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 봄인데도 가을 날짜를 적는 것이다. 역시 시어의 조탁이나 新奇를 추구하려는 의경의 설정은 보이지 않지만 애절한 상황을 재현하여 있는 그대로 형상화하여 전달하는 시적 능력이 돋보인다.

작가의 처지와 심정을 진솔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어의 조탁이나 생경한 시어의 사용보다는 오히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있는 상황을 담담하게 그려내는 수법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지나치게 꾸미거나 대상에 감정을 실어 의탁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며 이해하기 쉬운 시어와 자연스런 시상 전개로 보다 큰 흡입력을 가질 수 있다.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게끔 일상의 평범한 의경을 조직적으로 배치하여 가족에 대한 애뜻한 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하였다.

#### 4. 이안눌 변새시의 특징 및 의의

앞 장에서 살핀 작품 분석을 토대로 하여 전통의 수용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北塞錄」所載 변새시의 문학사적 특징 및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盛唐風의 변새시파 전통을 수용하여 조선 문풍에 맞게 계승했다는 점이다. 변새시는 본래 중국 문학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선 중기 學唐風의 풍조 하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용되어 발전된 형식이다. 당시 조선의 문풍은 전 시대 수백 년을 풍미하던 송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으며 해동강서시파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면서 성당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의가 성행하였다. 또한 성당이 아닌 만당에 그친 섬약한 三唐詩人을 극복하는 일 또한 당면한 과제였다.

조선 중기 學唐風은 강서시파의 무게중심에서 벗어나, 당시풍의 매력에 눈을 떠가던 金淨을 비롯하여 兪好仁, 申從濩, 朴淳, 鄭澈, 申光漢, 尹根壽 등이 주축이 된 1단계, 염정풍의 섬세하고 염려한 시풍을 추구한 최경창, 이달, 백광훈으로 대표되는 삼당시인과 허난설헌, 임제 등의 인물



이 등장했던 시대인 2단계, 盛唐風의 추구를 주요노선으로 한 권필, 이안눌, 차천로 등이 주도한 3단계, 擬古風에 강한 집착을 보인 정두경으로 대표되는 4단계로 나눌 수 있다.<sup>54)</sup>

성당풍 추구를 주요 노선으로 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안눌의 시풍에 대하여 정홍명이 “뛰어난 가락 성당 시대의 기운 있음을 다투어 보고/재주 호방하여 늘 하찮은 시인을 비웃는구나”<sup>55)</sup>라고 한 것이나 장유가 “성당의 시, 이 시기 성하니/그대(동악) 같은 작가 가장 속세에서 벗어나/득의 함이 멀리 천년 전을 기약하고/알아주는 이들은 대개 구천의 사람이 되었구나”<sup>56)</sup>라고 한 언급을 보면 當代에도 이안눌은 시에 있어서 그 이전의 쇠미해지는 기운을 끌어올린 문인으로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안눌과 권필이 주도한 성당풍의 노선은 무엇이며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성당 기상은 唐代 유행하였던 변새시과의 특징과도 연결된다. 당대 변새시의 풍격을 특징지을 때 흔히 ‘雄壯渾厚’<sup>57)</sup> 또는 ‘悲壯奇麗’<sup>58)</sup>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sup>59)</sup> 이 양자는 모두 단순개념이 아니라 복합적인 개념이다. 즉

54) 鄭珉, 「16·7세기 學唐風의 性格과 그 風情」, 『한국한문학회연구』 19, 한국한문학회, 1996, 198~206면.

55) 「江都後錄」, 74면, <附奉次東岳谿谷兩詞伯 酬唱見示諸韻 却呈求教>, “絶調爭看盛唐氣 才豪長笑小詩人.”

56) 「江都後錄」, 65면, <附次韻>, “盛唐詩什盛茲辰 大手如君最絶塵 得意遠期千載上 知音多作九原人.”

57) 余正松, 「具備萬物, 橫絶太空-論盛唐邊塞詩의 雄渾美」, 『四川師範學院學報』, 1991.4 참조.

58) 廖立, 「岑參邊塞詩의 風格特色」, 『唐代邊塞詩研究論文選粹』 186~193면 참조.

59) 변새시 풍격 특성에 대한 논의는 김경현(「邊塞詩의 本질속성에 대한 一考察」, 『陸士論文集』 54집, 1998)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논자는 당대 변새시의 특색을 시간성, 지역성, 체험성을 준거로 하여 나누어 살핀 후 결론에서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작

‘웅장’과 ‘비장’은 情的인 意境이며, ‘혼후’와 ‘기려’는 景的인 意境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새시를 시대정신의 반영이란 측면에서 접근할 때 ‘웅장’이나 ‘비장’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비장 역시 ‘悲’와 ‘壯’의 복합적인 함의를 갖는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슬프면서 씩씩함’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씩씩함보다 강하게 표현’되기도 하고 ‘씩씩함이 슬픔을 극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sup>60)</sup> 성당의 변새시는 작품의 悲壯美에서 다른 시기와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가장 두드러진 점이 ‘報國壯志’의 애국적 정조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성당 기상은 변새시파<sup>61)</sup>의 특징과 연결되며, 이는 情的 意境인 ‘悲와 壯’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悲壯美는 ‘悲’와 ‘壯’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씩씩함’과 ‘슬픔’의 전개는 그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표출되며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애국적 정조라는 지적이다.

송대 엄우도 “高適·岑參의 시는 悲壯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마음 속 깊이 사무치게 한다.”<sup>62)</sup>고 하였고 명대 호응린 역시 “高適·岑參은 悲壯으로 종주가 되었다<sup>63)</sup>라고 하여 高適·岑參 변새시의 총체적 예술 풍격을 평하였다.<sup>64)</sup>

---

가는 고적과 잠삼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60) 廖立, 앞 논문 참조.

61) 鄭家治의 앞 논문에서 “高適의 시는 고변새악부를 발전하는 명편이고 두보의 시는 당나라 최초의 卽事名篇이라는 신악부의 대작이다; 고적의 시는 비교적 농후한 낭만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두보의 시는 현실주의 정신을 위주로 한다. 고적의 시는 변새 전쟁을 묘사하고 두보의 시는 변새전쟁에 관한 내지 징병을 묘사한다. 그래서 고적의 시는 雄渾悲壯을 특색으로 한 협의의 변새시라 하고, 두보의 시는 淒涼 鬱憤을 특색으로 한 광의의 변새시”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62) 嚴羽, 『滄浪詩話詩評』: “高岑之詩悲壯 讀之使人感慨”

63) 胡應麟, 『詩藪內編』 권2: “高岑以悲壯爲宗”

64) 이병한 외 공저, 『中國詩와 詩人 - 唐代 篇』, 사람과 책, 448면.

특히 ‘悲壯美’를 표방하였던 성당풍의 변새시 작가 중에서<sup>65)</sup> 사회적 인식을 강하게 표출하기 보다는 변방 공간에서 느끼는 다양한 개인적 정감을 시화하였다는 점에서 岑參은 이안눌의 변새시 경향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岑參의 총체적 풍격은 悲壯·豪邁한 특징을 지니며 悲의 요소는 1차 중군 시기의 변새시에서 壯의 요소는 2차 중군시기의 변새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高適이 전시 상황의 현실 비판을 중시한 반면, 岑參은 변방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시름과 비애에서 오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중앙 관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갈등 등의 정감 표현을 중시하였다.<sup>66)</sup>는 점은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이안눌 한시와 중국 변새시파의 개별 작품에 대한 면밀한 비교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이안눌 北塞錄, 所載 변새시는 邊塞 風情에 대한 다양한 정서가 표출되는데, 여기에서 느끼는 정서적 갈등은 대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反戰 사상이라기보다 개인적 차원의 관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성당 변새시 작품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역사적 상황과 연관된 전쟁의 승리와 전쟁으로 인한 참상, 병사들의 행역에 대한 고통에 대한 묘사<sup>67)</sup>, 살육의 전쟁자체에<sup>68)</sup> 대한 反戰의식 등에 대해서 이안눌은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에게 나타나는 悲慨의 양상은 사회 현실에서의 전란이나 그로인한 살육에서 비롯된다기 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懷鄉과 客苦에서 비롯된다.

65) 高適과 岑參에 대한 논의는 崔庚鎭의 『高適·岑參의 邊塞詩 比較研究』(연세대 박사논문, 1995, 285면)와 강성위 편저, 『高適·岑參詩選』, 민미디어, 2001)을 참고하였다.

66) 崔庚鎭, 앞 논문 109면.

67) 강성위 편저 앞 책 15면. 高適, “戍卒厭糟糠/降胡飽衣食/關亭試一望/吾欲涕霑臆” <薊門>

68) 강성위 편저 앞 책, 岑參, “萬箭千刀一夜殺/平月流血浸空城” <戲封大夫破 播仙鎭凱歌六首 中 其五>

따라서 그의 변세시에는 변방 지역에서의 생활상이나 험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묘사되기는 하지만, 내용은 변방의 참상이나 전쟁이라는 현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군의 경험을 통해 그곳에서 감흥되는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또한 자아에 대한 비애와 갈등을 토로하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출하는 것을 주된 정조로 하는<sup>69)</sup> 이 시기 변세시에서 나타나는 그의 고뇌와 갈등은 사회적 현실이 원인이라기보다 개인적 측면에 주목하여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 시기 남긴 작품에서 변세이라는 공간은 사회 현실의 모순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라기보다는 개인적 측면에 주목하여 시적인 감정의 극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장소로 작용하여 작가는 자신의 비분강개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면서 ‘悲慨’의 미감을 보이는 것이다

『小華詩評』<sup>70)</sup>에서 “현실 이안눌의 시는 幽燕의 소년배들과 같아서 벌써 침울한 기상을 짙어지고 있다”라고 평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幽燕의 소년은 오도손의 「구웅시평」중 “魏武帝如幽燕老將 氣韻沈雄”에서 유래한 것으로 幽燕의 老將이란 幽와 燕이라는 지

69) 『北塞錄』所載 79제의 작품을 작가가 변세에서 느끼는 정회를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  |                                |
|--------------------|--|--------------------------------|
| 우국충성의 기개           | 16,17,20,24,25,26,27,28,30,31,33,34,35,51,77 |                                |
| 시름·비애              | 1,2,10,11,29,36,41,42,43,46,47,48,58,60      |                                |
| 그리움                | 고향   | 7,8,18,21,23,32,37,53,54,56,57 |
|                    | 가족   | 5,15,39,40,44,49,50            |
| 임난피난 회억            | 12,13,14,22                                  |                                |
| 우정·교유              | 3,4,6,9,19,38,45,55,59                       |                                |
| ※ 금강산 登覽詩 62-74 제외 |  |                                |

70) 洪萬宗, 『小華詩評』 하권 제39관 연세대 소장본, 안대회 역주(서울: 국학 자료원, 1993) 112면, “東岳詩如幽燕少年 已負沈鬱之氣”

역의 늙은 장수를 의미한다. 조조는 「薤露行」, 「蒿里行」, 「苦寒行」 등의 시에서 漢末 혼란기의 모습을 悲涼慷慨하게 그려낸 바 있다. 오도손이 이를 幽·燕의 老將에 빗댄 것은 유와 연이 변새 지역으로 향시 일촉 즉 발의 긴장감이 도는 지역인 것과 관련이 있다. 燕은 또 荊軻의 「易水歌」가 불려진 悲憤慷慨之士의 고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연의 노장은 항상 긴장을 풀지 못하는 침울한 존재를<sup>71)</sup> 말하며 이는 이안놀 변새시에 나타나는 悲慨의 미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런데, 비교적 젊은 시기에 쓴 「北塞錄」所載 작품들은 다른 시기에 비하여 悲壯과 慷慨의 미적 특질을 보이는 반면, 후대 작품인 동래부사, 단천군수 재임 시에 남긴 「萊山錄」이나 「端洲錄」所載의 작품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작품에서 두보의 沈鬱과 그 맥락이 닿는다고 할 수 있다.<sup>72)</sup> 沈鬱은 悲壯과는 실망, 분노를 드러내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감정의 절제와 온축에 있어서 좀 더 나아간 단계로<sup>73)</sup> 볼 수 있으므로 경험과 연륜에 의해 애민으로의 관심과 대사회적 인식이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悲壯'의 시풍은 朝天 노정 중에 쓴 『朝天錄』에 실린 <登統軍亭>

71) 임준철, 「조선중기 한시를 통해 본 한시 意象의 예술적 특성」, 『조선 중기 한시 意象論』(일지사, 2010), 348면.

72) 줄고(2005)에서 이안놀의 沈鬱 시풍은 임병 양란의 체험과 관련된 대사회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41면.

73) 具本鉉(2007)에서 침울은 슬픔과 좌절감에서 비롯되는 미감을 의미하지만 작품의 미감이 침착하고 모호한 상태로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즉 침울은 고민이 깊고 걱정이 많은 심적 상태를 가리키는 동시에 깊이 가라앉아 함축한 바가 많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슬픔과 좌절감이 비슷하더라도 이를 드러내는 방식이 다르면 미감과 풍격 또한 달라진다. 좌절의 원인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실망과 분노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침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즉, 침울은 슬픔의 감정을 절제함으로써 내면으로 침잠하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경우 淒涼과 哀傷의 미감이 만들어지고 슬픔이 울분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悲痛, 奮激의 미감이 만들어 진다고 하였다. 187면 참고.

의 ‘雄渾’ 시풍과도 비교하여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시점, 의경, 시상 전개에 있어서 실제 변재 공간에서 종군하는 주체로서의 체험을 시적 화자와 일치시켜 표현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이안눌 변재시에 나타나는 자아의 모습은 ‘지향하는 의지적 자아 형상’과 ‘실의한 현실에서의 자아 형상’에 따라 시점이나 시상전개, 정서 표출의 양상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두 양상 모두 종군 주체자로서의 1인칭 경험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먼저 ‘지향하는 의지적 자아 형상: 豪壯’은 의고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며, ‘丈夫’나 ‘男兒’ 등, 범칭의 인물 형상을 통해 작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켜 표현하며 감각적 묘사와 극적이고 순간적 장면의 연상의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작가 자신의 豪壯한 기상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실의한 현실적 자아 형상: 悲慨’는 상대적으로 사실의 성격을 강하게 띠며 ‘我’ ‘吾’ 등의 1인칭 화자가 시속에 나타나 감정이 직설적이고 진실하게 표현되고 수사적 기교보다는 자연스러운 직접 언술의 형식으로 작가 자신의 비애감을 드러낸다.

현실적 공간이 아닌 관념 속 공간인 중국의 관습적 시어를 차용하는 것은 특수한 명칭이나 기물과 관련된 전형적 의상의 활용을 통해 변재적 풍정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관련된다.<sup>74)</sup> 이는 시 속 상황을 조선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상이한 이질적 공간에 놓음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가질 수 없는 새로운 미감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의상의 계승을 통한 古色·古香의 미감 추구는 實景이 아니라 虛景이었기 때문에 시의 격조는 높을지 모르지만 정경이 참되지 못한 병폐를

74) 전형의상에 대한 논의는 임준철, 앞 책의 논의(일지사, 2010) 참고. 논자는 또 전형 계승 시의 성공여부는 의상의 병렬을 통한 선명한 대조와 장면들의 생생한 극화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남아 후대 비판을 받았으며 정두경의 경우가 그 대표적 예이다.

관습과 창조, 모방과 창작, 전범과 도습의 구분에 대한 논의는 한시라는 장르의 성격상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한시는 소재선정, 묘사방법, 주제설정, 형식 구성의 모든 면에서 ‘유형화된 목록을 참조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sup>75)</sup> 이러한 전범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시는 과거인 ‘古’에 의거하는 사유방식을 바탕으로 한 문학으로 여기에서 ‘古’는 내용과 형식의 모범이 되는 전범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전범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시에서의 새로움은 근대적인 의미의 독창성과는 구분된다.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전범을 거부하거나 전복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변용함으로써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다.<sup>76)</sup>

이안눌 변새시의 경우, 시어 차용의 소재적 차원에 있어서 의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나 의경이나 시상전개, 시적 화자의 시점, 조선 지명의 활용 등을 통하여 사실적 측면을 상호 보완하고자 하는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식 기저에는 증조인 海東江西詩派 李荇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sup>77)</sup> 보이며, 실제로 李荇의 「朝天錄」과 「東槎錄」을 읽고 “(증조부의) 옛 업적을 계승할 수 있다고 어찌 감히 말하랴. 전해주신 시편을 읽으니 도리어 잇기 어려움을 알겠네”<sup>78)</sup>라 한 표현에서도 이행을 추승하고자 하는 그의 태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이안눌이 의고의 전통이 강한 변새시에서 조선의 인명, 지명을 시어로 차용한 것은 종군 체험하는 현실의 구체적 공간이 시상전개의 공간으로도 작용하였음

75) 심경호, 「창작인가 모방인가」, 『한시의 세계』, 문학동네, 2006, 300면.

76) 具本術(2007), 앞 논문 122면.

77) 이에 대하여 이종복은 그의 논문(「이안눌의 현실주의적 詩精神과 紀實의 시세계」,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에서 이행을 배운 만큼 단련을 바탕으로 한 해동강서시풍이 나타난다는 논의를 하였다.

78) <平壤館, 讀容齋先生集朝天, 東槎等錄 有感而書>, 권2 「朝天錄」.

을 의미한다. 즉, 관습적 시어에 의한 관념적 공간이 가지는 상상적 요소와 실제의 공간이 가지는 현실적 요소를 아우르며 작시의 상황이나 의도에 따라 취택하여 활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이안눌이 남긴 관북 종군 체험의 기록인 『北塞錄』所載 한시를 대상으로 변새시의 양상을 살피고 그 특징 및 의의를 고찰하였다.

2장 ‘이안눌의 『北塞錄』과 변새시’에서는 본격적 작품 분석에 앞서 『北塞錄』의 작품을 개관하고 변새시 개념과 범주를 정리하였다.

3장 ‘邊塞 風情의 시적 형상화 양상’에서는 ‘豪壯’을 미감으로 하는 ‘지향하는 의지적 자아의 형상화’와 ‘悲慨’를 미감으로 하는 ‘실의한 현실적 자아의 형상화’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두 가지 양상을 다시 전지는 제목 형태에 따라 ‘題古樂府詩’와 ‘題朝鮮地名’으로 나누고 후자를 정서의 표출 양상에 따라 ‘내적 갈등의 직접적 토로’와 ‘절제된 슬픔의 담담한 슬회’로 나누어 개별 작품의 분석을 통해 의미를 살펴보았다.

‘豪壯’의 미감을 주로 하고 ‘지향하는 의지적 자아를 형상화’ 하는 작품의 경향은 의고의 성격을 띤 관습적 표현을 많이 써서 실제 모습과는 다른 다소 윤색된 공간으로서의 변새 장면이 제시된다.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감각적 시상을 통한 색채의 강렬한 대조, 지나친 과장의 방식을 자주 사용하며 시점도 ‘丈夫’, ‘男兒’ 등의 범칭의 인물 형상의 형태로 자주 표현되는 특징을 가진다.

‘悲慨’의 미감을 주로 하는 ‘실의한 현실적 자아의 형상’의 표출은 실제 경험을 직접적 예술 방식으로 드러냄으로써 변새 현실의 생활을 구현해



내는 특징이 있다. 좌절과 슬픔의 표출 방식은 때로는 직설적 언술로 다소 격하게 토로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을 절제하여 내면에 가라 앉힘으로써 담담한 어조로 자연스럽게 드러내기도 한다.

4장 ‘이안눌 변새시의 특징 및 의의’에서는 이안눌 작품의 한시사적 특징과 의의를 전통의 수용과 변용의 측면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조선 중기 학당풍의 분위기 속에서 변새시는 중국 성당풍 변새시파의 전통을 조선 문풍에 맞게 수용하여 발전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이안눌의 『北塞錄』所載 변새시는 邊塞 風情에 대한 다양한 정서 표현이 드러나며, 여기에서 느끼는 정서적 갈등은 대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反戰사상이라기보다 개인적 차원의 관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시점, 의경, 시상 전개에 있어서 종군하는 주체로서의 자신의 실제 경험을 시적 화자와 일치시켜 표현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한시라는 문학 갈래는 형식적 제약이 많고 전범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전통으로부터의 구속이 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 형식인 변새시에 있어서 의고의 요소를 단순히 모의 차원의 베끼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고와 사실 등과 관련된 영향 관계에 대한 논의는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물론 본고에서 살핀 『北塞錄』所載 변새시 역시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안눌의 변새시는 의고 전통의 수동적 답습이 아닌 자신의 종군 체험을 시속에 투영하여 발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그 독특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의 후속 작업으로 변새시의 장르 연구에 있어서 의고의 원천인 중국의 변새시파 작품들에 대한 비교 연구와 함께 차천로, 이수광, 정두경 등 다른 조선의 변새시 작가의 작품에 대한 비교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작가 연구에 있어서 이안눌이 노년기에 남긴 관북 경성에서의

유배체험 기록인 『北竄錄』이나 관찰사 재임시 남긴 『威營錄』과의 대비 연구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후고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李安訥, 『東岳集』(『韓國文集叢刊 78』), 민족문화추진회, 1994.  
李安訥, 『국역 東岳先生集』 I, 이필영 번역, 김종섭 교열, 덕수이씨 문혜공파중회, 2003.  
李行 외 저, 『新增 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솔 출판사, 1996.  
李行, 『容齋集』(『韓國文集叢刊 20』), 민족문화추진회, 1994.  
洪萬宗, 『小話詩評』, 안대회 역주, 국학자료원, 1993.

### 2. 국내외 논저

- 강성위 편저, 『高適·岑參詩選』, 민미디어, 2001, 85면.  
강성위 편저, 『高適·岑參』, 문이재, 2002, 114면.  
구본현, 「李安訥 邊塞詩의 研究」, 『韓國漢詩研究』 5, 2004, 299~342면.  
구본현, 『東岳 李安訥 漢詩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248면.  
권경록, <변방에서 부르는 노래 경성, 부령, 종성>, 『문학 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국내편 2』, 2005, 149~168면.  
김경현(「邊塞詩의 본질속성에 대한 一考察」, 『陸士論文集』 54집, 1998, 115~140면.  
김상일, 『東岳 李安訥 詩研究』, 보고서, 2000, 327면.  
김상일, 「조선조 邊塞 문학의 한 국면」, 『동국어문학』 13, 2001, 75~92면.  
김창호, 『조선 중기 서인계 시인의 시세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157면.  
杜甫, 『두보 시 300수』, 정범진·이성호 번역, 문자향, 2007, 463면.  
심경호, 「창작인가 모방인가」, 『한시의 세계』, 문학동네, 2006, 299~316면.  
이병주 편, 『한국의 한문학』 4, 민음사, 1991, 1525~2101면.  
이병한 외 공저, 『中國詩와 詩人 -唐代 篇』, 사람과 책, 1998, 968면.

-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556면.
- 임준철, 『조선 중기 한시 意象研究』, 일지사, 2010, 502면.
- 전형대·정요일·최웅·정대립 『韓國古典詩學史』, 기린원, 1988, 450면.
- 鄭家治, <試論杜甫的戰亂詩與邊塞詩>, 『Journal of Cheongdu Teachers College』, 22권, 2003, 68~73면.
- 정민, 「16·7세기 學唐風의 性格과 그 風情」, 『한국한문학연구』 19, 한국한문학회, 1996, 189~222면.
- 정요일, 박성규, 이연세, 『古典批評 用語 研究』, 태학사 1998, 519면.
- 최경진, 『高適·岑參의 邊塞詩 比較研究』, 연세대 박사논문, 1998, 968면.
- 팽철호, 『풍격론』, 사람과 책, 2001, 302면.

## ABSTRACT

## A Study on 「Buksaerok(北塞錄)」written by YI Ahn-nul

Bae, Joo-Yeon

In the history of Chinese poems in the mid of Yi Dynasty, YI Ahn-nul (1571-1637) and Guen pil were one of the most famous poets in that era and among them YI Ahn-nul's poem was affected by Seongdangpung(盛唐風).

Among YI Ahn-nul's Dongakjib(東岳集), this paper studies Buksaerok(北塞錄) article no. 1 which wrote about experiences of Guanbuk(關北).

Before studying the Buksaerok(北塞錄) his career at Buksaerok government is reviewed, and then outlines of poems in Buksaerok(北塞錄) and concept of the exiting Beonsae(邊塞) atmosphere at that time is summarized.

This paper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ems in two parts, one group is characterized by "willingness to overcome", another by "disappointment to the reality".

The former group is categorized with two types by their subjects, and the latter with "direct exposure of his distress" and "tempered expression of his sadness". Through these categorizations, this paper analyzes characteristics of his poems and their meanings.

His poems characterized by "willingness to overcome" were expressed through the customary phrases a little remote from the reality, such like those using the exaggerated, rhetorical and strong contrast expressions.

His poems characterized by "disappointment to the reality" were written through the direct expression of his experiences that described the reality. Those expression, sometimes, were written directly and, sometimes, with the tempered.

In the last place, this paper examined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his poems in the aspect of the acceptance and modification of the tradition

at that time. First, his poets accepted the China's Seongdangpung(盛唐風) traditions, and developed and modified that tradition for that of Yi Dynasty's. Second, his poets were written with the various emotional expressions. But those expressions were defined only for individual perspectives not for those of society. Third, in aspect of describing the image his poets have the characteristics to express his real experience of war through the narrator of the poets.

**Key Words** Buksaerok(北塞錄), Beonsae(邊塞), willingness to overcome, disappointment to the reality, Seongdangpung(盛唐風).

|                      |
|----------------------|
| 논문투고일 : 2011. 10. 15 |
| 심사완료일 : 2011. 11. 30 |
| 게재확정일 : 2011. 12. 05 |